

트러스트무용단 창단 10주년 기념공연
연작 십계 두 번째 “해당화”
2006. 2. 25~26 토·일요일 오후 6시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TDC(Trust Dance Company, 트러스트무용단)의 창단 10주년 기념공연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TDC는 1995년 학연, 지연,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지금까지 오직 대중과 함께 춤으로 호흡을 나누려고 노력해온 건실한 무용 단체임을 알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세월 동안 교육, 정치, 사회계에 몸담아온 저로서는 한 목표를 향해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깊이 배워왔기에, 지난 10년간 술한 어려움 속에서도 곳곳이 순수예술 작품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귀한 무용단을 알게 된 것은 저에게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며 사회가 있는 곳은 항상 문화라는 꽃이 피어납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문화 속에서도 예술은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술이 없는 사회는 그저 삭막한 관계만이 형성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예술을 통해 미에 대한 인식을 꽃피우게 되고, 좀 더 새롭고 아름다운 세계를 향한 꿈을 자유롭게 나누게 합니다. 예술은 또한 사상과 국경, 인종을 초월하며, 인간이면 누구나 함께 느낄 수 있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술이라는 우산 아래에 누구나 친구가 될 수 있으며, 한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춤은 전 세계 어디서나 인류를 하나로 만드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TDC는 지난 10년간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며 공연해오면서 이 같은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해오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제 정보, 통신, 교통의 발달로 바야흐로 하나의 지구촌을 형성하고 있는데 한 지역의 문화예술은 더 이상 고립된 채로 남겨지지 않을 것이며, 또한 좋은 것들은 나누어질 때 그 가치가 더 높아지는 법입니다.

향후에도 TDC가 좋은 작품으로 사람들에게 봉사할 뿐 아니라 해외의 여러 나라에도 예술활동을 통한 교류와 협력을 목표로 민간사절단의 역할 또한 충실히 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0주년 기념공연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아무쪼록 이번 공연을 통해 다시 한 번 새로운 도약을 하는 트러스트무용단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DC 창단 10주년 기념공연을 축하드립니다

IACD 아시아협력기구 이사장, 강석규

1995년 봄, 부산의 광안리 바닷가 작은 연습공간에서 그 파리를 틀었던 트러스트무용단이 어느덧 창단 10주년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창단부터 파란을 일으켰던 트러스트는 지역 춤계의 따가운 시선에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 했고, 오히려 서로를 굳건하게 하나로 엮어주었던 초기를 지나 술한 우여곡절이 주마등같이 스쳐갑니다. 창단과 함께 지역을 오가며 열었던 많은 공연들과 실크로드를 춤으로 다시 열겠다고 매년 계속되는 장정들.

십년대운이라 하였던가요? 지난 2004년에는 감사하게도 “숫나기”라는 작품으로 올해의 예술상 수상이라는 영광도 빼놓을 수 없지요. 이는 창단을 주도했던 김형희, 김남진, 임현미 세 사람의 춤에 대한 열정이 없었다면, 그 뿌리가 오직 춤에 있지 않았다면 그리 녹록치 않은 이 땅에서의 민간 춤 단체로 10년이라는 기간을 한결갈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의 트러스트를 가능토록 그 밑거름이 해주었던 창단단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가까이서 또는 멀리서, 짧게 또는 긴 기간을 트러스트와 함께 하였던 많은 춤꾼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지난 10년을 통해 출판도 많이 변했고, 트러스트의 모습도 많이 변했지요. 하지만 이렇게 하나들 모인 춤에 대한 열정과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만은 변함없었기에 오늘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저희의 매번 춤 공연에 빠짐없이 자리하셨던 고마운 얼굴들, 그 얼굴들에는 가족과 친구들의 따듯한 시선도 있었고, 잘해나가길 바라던 춤의 선생님들과 선배님들의 얼굴도 있었습니다. 지금 고백컨대 이 땅의 춤꾼이 당당하지 못할 이유 없다 해도, 유독 그분들에게만은 더욱 멋진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 긴장했었지요.

트러스트 10년에 조금씩 알아가는 춤의 소중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겨울 넘어 봄을 맞이하듯, 춤은 봄을 불리와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부족함이 많고 어렵기도 합니다만 그간 함께하였던 많은 분들의 격려와 사랑으로, 버릴 수 없는 우리 춤 사랑의 뜨거웠던 가슴 그대로 봄을 기다리는 너와 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는 신명의 춤판을 열어가기 위해 더욱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트러스트무용단의 1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 함께하여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춤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트러스트무용단 대표

트러스트무용단 창단 10주년 기념공연은 그간 함께한 춤꾼들의 정성과 감동이 담긴 신명의 춤판과 아울러 트러스트가 십 여년간 일구어온 춤 정신이 집약되어 제시되는 자리기도 합니다.

트러스트와 국외에서 활동 중인 춤꾼들의 무대로 1부 공연 <Standing> 과 <Story of B>, 2부 공연 “춤으로 다시 보는 십계” 연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을 오늘날 의미로 해석한 <해당화>로 여러분에게 새로운 감동을 전합니다.

Standing

안무·출연 유연아

Story of B

안무·출연 김남진, 전인정

“춤으로 다시 보는 십계” 연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 해당화

안무	김형희
연출	김윤규
출연	최종천, 이선영, 제니경자라, 한새아, 이미리, 이지은, 주정민, 권예진, 김시은, 김윤규
무대감독	박기남
음악제작	박소연
의상제작	이진희
조명디자인	김절희
조명보조	정미현, 김희선, 이형규, 탁형선
무대디자인	김한신
영상제작	틀어
사진촬영	최병재, 김군

Standing

마음을 품은 삶들이 바닥으로 흩어지고 있다
의식과 무의식의 사이...
의지와 좌절은 타협과 함께 한 걸음씩 앞으로 내딛는다
웃으며 바로서 있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텐데...

Story of B

우리가 힘없이 버려져 있는 순간이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들은 스스로의 공간이 없으며, 그들을 구제하는 자는 동정심과 불안감 사이에 갈등한다. 우리는 돈만을 구하지 않으며, 기회와 주목, 그리고 사랑을 갈구하기도 하고 때론 그 역할이 서로 반전되어 질 수 있음을 믿는다.
가끔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과 결코 소유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욕망도 함께 구걸한다.



유연아
전 트러스트무용단원이었으며,
독일 Essen 폴크방대학원
Aufbaustudium, 독일국립
Palucca대학원을 졸업하고, 벨
기에 Charleroi 무용단에서 활
동하였다.



김남진
1995년 트러스트무용단의 창단
을 이끈 후 유럽으로 건너가
Taffanel 무용단, 프랑스 국립
무용단 C.C.N.R. B(Catherine
Diverres)과 작업 후 현재 벨기
에 les ballet C de la B 무용단
에서 활동하고 있다.



전인정
현재 독일의 주목받는 안무가,
무용단 블루엘레펀드의 대표이
며, 지난해 독일 노르트라인-베
스트팔렌 주가 수여하는 NRW
상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 유럽
과 한국을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춤으로 다시 보는 십계” 연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해당화

“해당화”는 극한의 바닷가 모래땅에 소리 없이 피어나는 지고의 사랑이며,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창작춤 “해당화”는 오늘에도 계속되는 부모의 붉은 마음입니다. 노도와 같은 역사의 중심에 묵묵히 피어난 꽃 “해당화”는 이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부모의 붉은 눈물의 꽃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세월이 주는 참의미인 “인간의 자유”를 위해 죽기까지 피워야 할 꽃입니다.

알면서도 기다리는, 알면서도 기다리고 피어나는 아픈 사랑 “해당화”. 그때 인간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일그러진 몸, 버려진 시절 그리고 소중한 간직한 배냇저고리는 가슴에 상처로 남아 불면의 오랜 밤들, 오늘 일그러진 몸 그대로, 버려진 시간, 지울 수 없는 배냇저고리 눈물 부여안고 해원의 바다에 자유의 꽃을 피웁니다.

성서를 통해 말하는 열 가지 계명의 본질은 모두 “인간의 자유”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의 진정한 의미 또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버려진 아들은 다시 한 번 고백합니다.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 말은 곧 “아들의 자유”이자 죽음에도 자유로울 수 있었던 부모에 대한 공경의 전형입니다. 버려진 아들과 딸들의 해맑은 웃음과 흐느끼는 어미의 떨리는 뒷모습 그리고 일그러진 몸으로 전하는 회복의 몸짓... 해당화는 자유를 위해 불려져야 할 노래이며, 그 노래가 증거하는 오늘 사랑입니다.

트러스트무용단의 연작 십계 두 번째인 “해당화”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의 오늘날 의미를 담은 자유를 향한 인간의 외침입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함께 나눌 우리들의 이야기”

트러스트는 창단과 함께 “사람을 중심으로 함께 나눌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슬로건 아래 과거 창작춤의 모호성을 비판하며 우리들의 삶이 담긴 춤, 역사와 세상에 깨어있는 춤을 통해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오늘의 춤극(劇)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춤에서 인식되어지는 춤으로……”

트러스트의 작품은 그저 보이는 춤이 아닌, 보는 이로 하여금 인식되어지는 춤을 창작하고자 합니다.

단순한 동작의 나열이 아닌 트러스트의 춤에는 보는 이로 하여금 인식되어질 춤 언어가 녹아 있습니다. 서양과 다른 우리 옛 연희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연출과 창작방법론의 연구 그리고 지속된 다양한 몸짓 수련을 통하여 관객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춤으로 다시 여는 실�크로드”

이는 1997년부터 시작되었던 트러스트의 장기 프로젝트 중 하나로 오늘 날까지도 교류가 활발하지 않은 실�크로드의 각 나라들을 춤과 예술로서 다시 열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트러스트는 “춤으로 다시 여는 실�크로드”라는 프로젝트를 현재까지 독자적으로 이끌고 있으며 지난 97년 우즈베키스탄과 아제르바이잔에서 본 단의 공연을 열었으며, 이어 몽골에서의 이삼 년에 걸친 교류와 공연, 중국에서의 객원안무 및 워크샵 그리고 지난 2005년은 티벳에서 외국단체 최초의 공연 등을 열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회의 공연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문화예술을 향한 교류의 첫걸음이며, 국가나 기관에서 불가능한 사업이기 에 더욱 그 의미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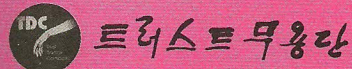
트러스트무용단원 및 강습회원 수시 모집

트러스트무용단은 여러분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춤 강습(비전공자 참여가능)에 참여를 원하거나 무용단원으로 활동을 원하시는 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열정 많은 춤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 dancero@naver.com 또는 02-8790-613, 011-9965-2068



1995년 창단된 트러스트무용단(TDC)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TDC만의 창작정신을 담은 우수한 작품으로 국내공연은 물론 유럽, 중국, 일본, 몽골, 유라시아 등 국제 공연 및 교류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1995년 5월 대구무용제를 시작으로 하여 지역초청과 문화소외지역(공단 지역 등) 순회공연을 기획하였고, 1999년 일본 사이타마에서 열린 “국제 창작무용 콩쿠르” 에선 반전(反戰)의 이야기를 담은 “우리가 원하는 것...” 이라는 작품으로 많은 일본 비평가들과 관객의 호평 속에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04년에는 “인간의 거듭남”을 주제로 한 “숫나기”라는 작품으로 한국문예진흥원(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 주관하는 “올해의 예술상” 최우수상과 함께 한국 춤평론가회로부터 올해의 최고 안무가 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1665-1 은혜빌딩 151-849, 전화 02-8790-613 홈페이지 <http://www.dance.ne.kr> 이메일 dancero@naver.com